

News

자영업자 대출 2년 새 48.7조원 ↑ ... 가계대출 앞질러

조선비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2년 새 50조원 가까이 급증... 총 221만 3,000건... 동 기간 가계대출 규모가 15.6% 증가한 것에 비하면 증가세가 가팔라...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정책 속 빛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금리 상승기 대출 부실 가능성도 우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자사주 1천200주 매입

매일경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7일 기준 신한지주 주식 1,200주를 주당 38,400원에 장내 매입... 총 보유 지분은 14,780주로 증가... 관계자, 주가 부양과 주주가치 제고 의지로 해석... 앞서 작년 1월 4일에도 4,608만원 어치 1,580주 취득한 바 있어...

금감원, 은행 지자체 금고 등 자금 유치 행위 통제

서울신문

금융감독당국, 올해도 은행의 지자체 금고 유치 과열을 막기위해 나서... 유치 경쟁 과열되면 시장 질서 망가지거나 각종 금융사고 발생 위험 있기 때문... 은행의 재산상 이익제공에 대한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연장을 예고... 다음달 23일터 연장 시행 예정... 출연금 및 협력사업계획 반영 기부금, 후원금, 각종 편익 제공 대상

국내은행 손실흡수능력 과신...특별대손충당금 유도 필요

연합인포맥스

금융연구원, 국내은행들의 높은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손실흡수능력에 대한 과신 유발 우려 있다는 제언... 특별대손충당금 등 유도 가능 정책 수단 마련 필요 주장... 현재 높은 대손충당금적립률은 대손충당금 증가 뿐만 아니라 부실채권 규모가 많이 축소됐기 때문... 현재 신용평가 하향 조정이 어렵고 회계기준 상 한계 등 제한 요인 존재

안전자산 확대 국공채 늘리는 생보사들

뉴스토마토

생보사들, 국고채 투자 비중 증가... 작년 11월 기준 생보사의 국공채 자산 총 327조 2,44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2% 증가... 한화생명 19.11% 증가로 가장 큰 증가폭... 반면 회사채 자산은 3.67% 감소...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안전 자산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

삼성, 내달 통합 앱 '모니모' 출시... 금융플랫폼 시동

한국보험신문

삼성 그룹계열사 생명, 화재, 카드, 증권 등 4개사, 통합 앱 출시 준비 중... 가칭 모니모(Monimo) 통합 앱으로 신사업 진출 중단 상황의 돌파구 기대감... 업계에서는 빅테크와 견줄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 현재 삼성카드와 삼성화재는 각각 1,000만명, 삼성생명은 820만명, 삼성증권은 400만명의 고객 확보 중

변동성 커진 증시에 '연 18%' ELS 줄이어

뉴스토마토

증권사들, 연 18%대 증수익 ELS 연이어 발행... 통상 3~5% 및 10% 수준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률... 글로벌 증시 변동성 때문... 손실률이 제한되는 원금 보장형 증수익 ELS 상품도 나와... 업계에서는 기준가격 낮아지고 쿠폰 수익률 증가해 상대적으로 ELS 매력도는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

자산운용사, 중학개미 모셔라...중국 펀드 출시 러시

한국금융신문

미국 증시 널뛰기 속 중국 주식형 펀드 관심 증가... 7일 기준 중국 주식형 펀드의 순자산은 11조 5,959억원으로 연초 이후 8,483억원 유입... 코로나19 이후 금리 인상 신호 분위기 속 중국은 금리 인하 카드 꺼내... LPR과 지급준비율을 각각 0.05P, 0.5% 인하...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폭 넓어질 것으로 기대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